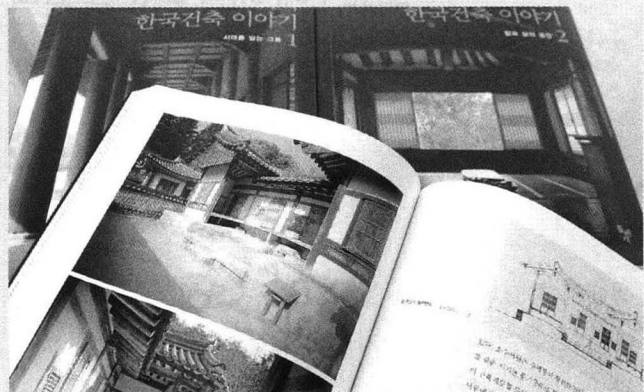


#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우리 건축을 통해 읽는 인간과 역사 이야기  
풍부한 인문학적 사유, 독창적 시각 돋보여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전 3권)  
김봉렬 지음 | 돌베개 | 각권 400쪽 내외 |  
각권 값 25,000원



오악, 미술, 디자인 등 전문 분야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전문 지식의 대중화가 출판계의 트렌드가 된 요즘, 건축 분야에 관한 책도 이론서부터 답사여행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나온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는 전체 3권 분량이 1200여 쪽에 이르는 두툼한 부피만큼 충실한 내용과 편집이 돋보이는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995년에서 97년까지 건축 잡지 《이상건축》에 연재한 내용을 묶어 1999년에 출간한 《한국건축의 재발견》의 개정증보판이다. 출간 직후부터 학계와 독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 전통건축 전반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교양입문서로 자리매김해오다가 출판사의 사정으로 절판된지 2년 여 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 도해와 색인 추가, 구성과 디자인 가독성 높여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의 책임편집자인 돌베개 문화예술팀 윤미향 팀장은 “저자가 개정판을 낼 것을 제안했고 학자, 관계자 및 독자들의 요청도 있어서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했다. 작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국건축의 재발견》이 ‘한국의 책 100’ 중 한 권으로 선정된 것도 개정증보판 출간의 계기로 작용했다.

“전체에서 중요한 10개의 주제를 간추려 한 권으로 제작한 하이라이트 영문판을 선보인 것이 주목을 받았죠.

동양학쪽 서적을 많이 내는 영국의 새프런Saffron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교민들과 한국 건축에 관심이 많은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초판에 담긴 저자의 시각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독자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보충했는데, 초보자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 역사 용어, 인명 등을 수정했고 본문에 나온 건축물들을 보기 쉽게 설명한 도해와 색인을 담은 부록을 책 말미에 덧붙였다.

워낙 텍스트 분량이 많고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편집디자인도 품이 많이 들었다. 가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하면서 사진을 전면 컬러로 교체했다. 초판은 텍스트와 사진의 배치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 개정판에서는 판형을 키워서 사진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텍스트 내용과 사진이 일치하도록 신경을 썼다. 편집 디자이너 이은정 씨는 “초판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사진은 대부분 원래 것을 살렸지만, 분실된 필름도 있고 오래된 사진들이라 색보정 작업을 했음에도 일부 사진의 질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며 디자인 작업의 고충을 들려 줬다. 초판의 사진을 담당했던 작가가 개정판을 위해 다시 현장을 돌면서 보충 작업을 했는데, 첫 글이 연재된 때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상이 많이 변한 곳도 있어서 새로 찍은 사진을 신지 못한 점도 애로사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진 작가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자료 사진들을 제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전체 사진의 대략 30퍼센트 정도가 교체되었다.

## 새 논쟁과 변화 담아…개정판 넘어선 증보판 역할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는 총 25개 주제 안에 건축 이론과 역사를 꼼꼼하게 직조함으로써 한국 전통 건축을 집대성하고 있다. 1권 ‘시대를 담은 그릇’은 특정 시대의 특정한 건축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공시적 관점으로 읽

어 내며 건축에 담긴 시대성과 지역성을 다루고 있다. 2권 '삶과 삶의 공간'의 주제는 한국건축의 다양한 전통들이다. 개인주택에서 마을, 서원에서 정원까지 한국건축의 풍부한 변용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담고 있다. 3권 '이 땅에 새겨진 정신'에서는 한국 건축 전반에 흐른 정신활동의 궤적을 추적하고 그 정신들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건축물이나 공간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초판이 나온 99년 이후부터 건축학계에서 벌어진 새로운 논쟁들과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담아내 단순한 개정판이 아닌 새로운 증보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다.

특히, 종묘와 석굴암, 사찰 등 우리에게 친숙한 유적지에 대한 부분들은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저자는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문화 유적지로서 종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종묘 자체는 문화 유산으로 손색없는 위엄을 갖고 있지만 종묘와는 동떨어지는 주변 환경 개발로 인해 종묘의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원래 녹지 생태 공간이던 종묘의 생태성이 파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물과 자연이 함께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석굴암 모형 설치 여부를 두고 벌어진 학계의 논쟁이나, 사찰들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원래의 모습과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적지 소유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건축물을 관리·보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 볼만하다.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채로 방치된 건축물도 있고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자는 실제 생활이 이뤄지면서 사람과 함께 그 생명력을 유지해가고 있는 건축물에 가치를 두고 있다.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공간, 세월과 사람과 함께 호흡하며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존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기체로서의 건축물의 가치를 설파하고 있다"는 게 윤 팀장의 설명이다.

#### "건축을 박제된 유물로 보지 말라"는 메시지 전해

"과거의 건축물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미래의 건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생각거리를 던져 줍니다. 옛 건축들을 전통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의 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건축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고정되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저자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책의 저자 김봉렬 교수는 건축가이자 건축사학자로서



들베게 문화예술팀 윤미향 팀장은 책을 편집하면서 '저자의 시각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한 건축의 모습들을 읽어 내는 예리한 시각을 보여 주는 동시에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장점인 쉽고 재미있는 문체에 건축물의 사연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언급한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이 어우러져 읽는 맛과 깊이를 더해준다.

윤 팀장은, "건축 이론과 역사를 다 아우르면서 국문학, 역사학, 성리학, 불교, 위상수학과 건축공학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지식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심층적,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낸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했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저자의 뛰어난 상상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건축물에 숨겨진 의도, 연출을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의 건축물이 그 양식으로만 들여지기까지의 과정과 이유, 그 안에 담긴 건축가의 뜻을 독창적인 시각과 상상력으로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한국건축의 재발견》은 출간 당시 소장 학자였던 저자가 시도한, 기존의 한국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바꿔놓는 파격적인 '재발견' 들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주류 학자가 된 저자가 개정 증보판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를 통해 보여 주는 시각은 초판과 동일하다. 윤 팀장은, "건축을 통해 역사와 인간을 읽고 싶었고, 역사를 통해 건축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었다"는 저자의 말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우리 건축과 사람과 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담긴 이 책은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한국 건축을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로 보지 말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절실하게 다가 올 것입니다." **출판**

취재\_김지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